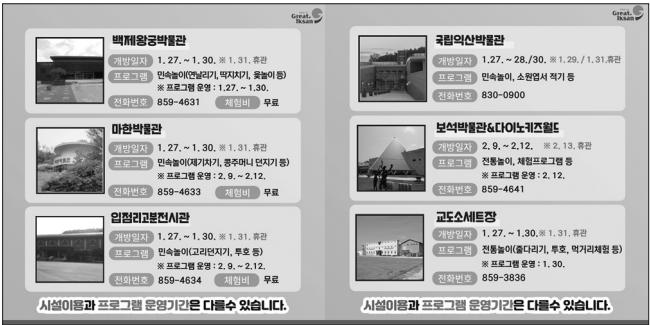


설 연휴 익산 곳곳에 즐거움 가득

미륵사지 · 왕궁리 유적지 · 이상한 교도소 명절 내 개방
보글하우스 · 도토리생태원 · 액션하우스서 각종 체험 등



익산시는 기나긴 연휴에 가족 · 연인 ·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설 명절은 옛새에 달하는 긴 연휴가 됐다. 여기에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다면 길게는 9일을 쉴 수 있는 만큼, 명절을 앞둔 시민 사이에서는 설 램프가 가득한 분위기다.

익산시는 기나긴 연휴에 가족 · 연인 ·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21일 밝혔다. 익산에서 추위마저 잊게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운의 선물로 진한 추억을 남겨보자.

우선 익산시는 설맞이 익산 여행 후기 이벤트를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한다.

설 명절에 익산을 방문한 후 사진과 함께 익산시 문화관광 누리집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익산시 관광 마스크트 마룡 그림북이 증정된다. 빠르게 후기

를 작성한 선착순 30명은 마룡 텀블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선 시는 명절에 가볼 만한 관광지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추천했다. 두 곳 모두 설 연휴 내내 상시 개방돼 있다.

눈 쌓인 겨울 백제왕궁에서는 왕궁리 5층 석탑을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생각해 보고 내면을 성찰하는 등 충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미륵산을 병풍 삼아 넓게 펼쳐진 미륵사지에서는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황아리 수천 개가 장관을 이루는 '고스락'도 빼놓을 수 없다. 불거리 뿐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입을 즐겁게 하는 특별한 메뉴를 만날 수 있다.

'이상한 교도소(교도소 세트장)'와 '만경강문화관', '보글하우스'는 어린

이 가족을 만날 채비를 마쳤다.

이상한교도소는 오는 27일부터 설 다음날인 30일까지 정상 운영한다.

방문 시 옛놀이 상시프로그램과 추억의 먹거리 체험, 행운의 뽑기를 즐길 수 있다.

만경강문화관은 전통 노리개 웨이커와 전통 기와 풍경 만들기, 딱지치기 등 프로그램을 현장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설 당일인 29일은 휴관한다.

익산역 앞 옛 익산아트센터에 마련된 보글하우스는 '새해 보글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설맞이 신년 운세 뽑기와 전통놀이 체험이 열린다.

라면 콘텐츠 체험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참여가능하다. 설 당일 29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문을 연다.

금마면 서동생태관광지에 있는 도토리생태원은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식물과 함께 여유를 만끽하기에 좋은 공간이다.

도토리생태원은 설 명절 카페를 찾는 시민에게 생태환경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생태관광지 내에는 액션하우스도 있다. 액션하우스는 어린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물 체험 공간이다. 최근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새끼 알파카를 비롯해 40여종 300마리의 동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뱀의 해를 맞아 뱀과 사진을 찍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익산 관광 정보는 익산시 관광 누리집이나 익산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긴 명절 연휴를 맞아 익산 관광지 곳곳에서 소소하지만 알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익산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축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군산 주공시장 · 공설시장 · 신영시장 · 역전시장 · 수산물종합센터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1.23(목) ~ 1.27(월), 5일간 ·

● 행사 대상
행사 참여 자영업자 당일 산산 농축산물 구매 고객
* 당일 구매 영수증 또는 산출증 지참 필수

● 환급부스 시간
09:00 ~ 18:00
* 시정별 (자영업자) 상점별 운영

● 환급 기준
34,000원 (미) 67,000원 (미)
10,000원 (미) 20,000원 (미)
* 행사 기간 내 2만 원 이상 구매 시 추가 환급

● 환급률
50%

동해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필수!
● 본인 확인
● 본인 인증서 발급
● 본인 인증서 발급

● 본인 확인
● 본인 인증서 발급
● 본인 인증서 발급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주공시장, 공설 · 신영 · 역전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농축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추진하는 행사이다.

먼저 △농축산물의 경우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려면,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 · 수산물, 첫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할 때는 2만 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위치한 환급소에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들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

단,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익산시장, 하계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정현을 익산시장이 21일 '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했다.

GBCH는 하계올림픽 유치 구호인 'Go Beyond, Create Harmony'의 줄임말로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창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챌린지에 참여하며 "전북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올림픽 유치의 꿈을 반드시 실현

군산시,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 · 접수

군산시가 2025년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2월 7일까지 축사(사업장)소재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5년 축산분야 보조사업은 총 19개 사업(총보조금 51억8,8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축산기가지체 등 지원 7개 사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 2개 사업 △폭염 피해 대비 2개 사업 △축산환경 관련 8개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군산시 공고에 통해 사업별 사업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2월 7일까지 축사(사업장)소재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시는 사업별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서류 · 현장 평가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은 3월부터 본격추진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방역 분야 보조사업 신청 · 접수를 2월 초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축종별단체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소식 통

"신재생자원센터, 주민 중심 복지기준으로 재정립해야"

오원선 시의원

익산시의회 오원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타 조례에서 경로 연계를 65세로 명시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26조'를 근거로 65세 이상의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신재생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은 이용료를 높게 운영한다면 운영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최고 2천만원으로 상향 조례개정

최재현 위원장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대표 발의 한 「익산시의사자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67회 익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자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 내용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로운 희생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 향후 익산시에서 의사자유 발생 시 유족들은 국가 보상금(2025년 기준 2억 4천6백5만 8천 원), 전북자치도 특별위로금(최대 3천만원), 익산시 특별위로금(최대 2천만원)을 합산하여 최대 2억 9천6백5만 8천원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주요 성수품 16개 품목 집중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군산시가 설 명절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은 오는 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 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운영 기간에는 공무원 및 소비자 단체 물가 모니터 요원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반을 구성해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먼저 점검반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사과, 배, 소고기, 명태 등의 주요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 파악에 나선다.

이외에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대규모 점포,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공설시장, 역전시장 2개소에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 30여 명과 함께하는 물가안정 캠페인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 성수품 부당한 가격 인상 자제와 친절서비스 제공에 대한 홍보물을 전달하며 독려에 나섰다.

현재 군산시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구매하고도 상향(10만원~40만원) △전통시장 농 · 축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인 최대 2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백년가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회차별 1인 2만원 한도, 최대 8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카드사 연계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계 (☎063-454-2675)로 연락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 · 금당 · 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